

# 「에너지전문인력양성센터」설립 추진한다

-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후 인력 재교육 담당 -

■ 이선희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최**근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은 부설 에너지정책연구소를 5월 1일자로 설립하고 초대 소장에 강승진 교수를 임명했다. 강승진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Grenoble대학에서 자원환경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 83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올 3월 에너지대학원 개원과 더불어 조교수로 임명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협상 정부대표단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국내외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너지정책연구소를 맡아 어깨가 한층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에너지 산업 정책, 에너지 수급분석,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책 개발 등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에너지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교수진 및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입니다.”

강 교수는 현재 연구소를 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벌써 정부 용역 2건을 수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기후변화협약 협상대책연구회 프로젝트가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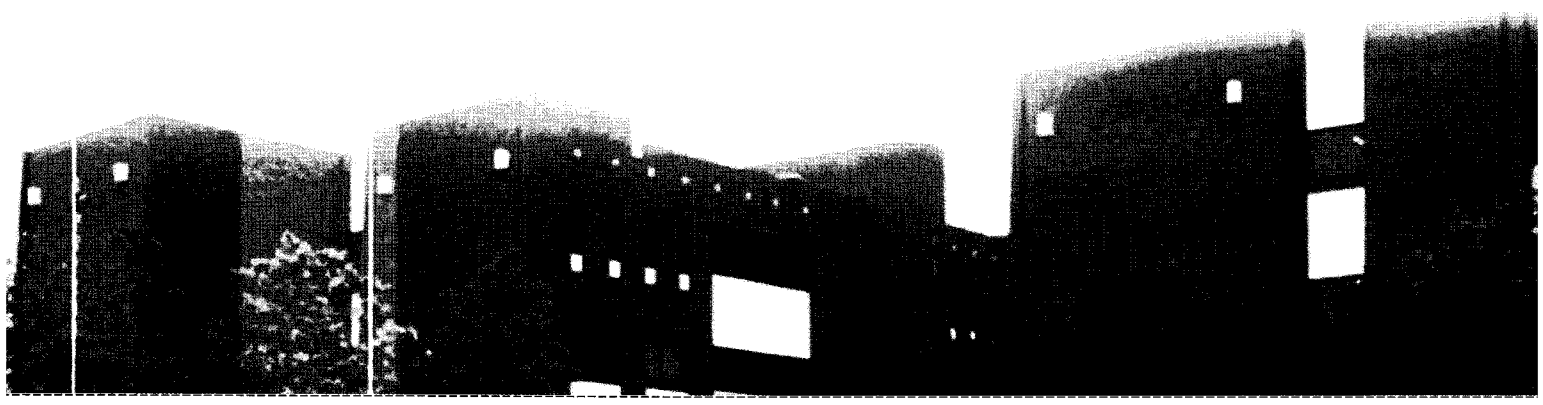
산업정책, 수급분석,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책개발 등 3가지 분야에 중점

취임 초창기여서 그런지 강 교수의 머리 속에는 에너지정책 연구소 운영 계획안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추진하고, 연구소의 재단화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가 이미 세계 10위권이고 에너지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며 WTO체제 하에서 국제적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도 이에 맞춰 빠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또한 연구소는 10년 후의 에너지 산업을 제대로 조망하고 종합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인력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강 교수의 생각이다.

현재 에너지대학원에는 박사과정 10명, 석사과정 28명이 등록하여 수학 중이다. 내년도 석사 40명, 박사 10명이 등록하면 정원을 채우게 되는데 이 때가 되면 에너지정책연구소도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초창기이다보니 교육 시설, 재정, 인력 확보, 재교육 여건 등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전문인력양성센터는 신규 인력 뿐만 아니라 기



에너지전문인력양성센터는 신규 인력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에너지산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중점사항으로 기획중입니다. 곧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텐데 남은 인력들의 재취업 등 인력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의 에너지산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중점사항으로 기획중입니다. 곧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텐데 남은 인력들의 재취업 등 인력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 교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양성센터가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에너지서비스 분야 등으로의 원활한 인력이동에도 센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수급은 시장 자율기구로  
정부는 공익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정부의 대표단으로 기후변화협약총회에 5번이나 참석한 바 있는 강승진 교수는 “이제 에너지의 문제는 정부와 산업체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과거의 에너지는 생존 또는 발전의 문제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일반상품처럼 경제의 논리에 의해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수급 문제 등은 자율적인 시장기구에 맡기고 정부는 안보와 대외협력 차원에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섭을 줄이되 룰이 정확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게 될 에너지 수급분석 및 전망, 기후변화협약협상 및 대책, 에너지 산업정책 등을 연구하는 에너지정책연구소의 설립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에너지 문제는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매우 시급한 화두로 떠올라 있다. 하지만 아직 일반인들은 그 중요성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에너지전문대학원이 개원되고 부설로 에너지정책연구소가 개소된 것은 매우 발빠른 대응이라는 세간의 평가다. 강교수와 연구소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보자. ⑥

